

공의(公義) 지향성 척도

Righteousness Orientation Scale (ROS-36)

『공의로운 정의(2026)』 윤정구 이론에 기반한 측정 도구

척도 개요

본 척도는 공정성(Fairness)이라는 정의의 빙산 윗동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밑동, 즉 공의(公義, Righteousness)에 대한 지향성을 측정합니다. 공의는 공정성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정의의 근본 원천으로,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집니다.

- 존재목적(Purpose): 유전자 복권을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사는 이유
- 공휼(Compassion): 상대의 보이지 않는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여 동반자로 세우는 사랑
- 코즈/大義(Cause): 존재목적의 밑알을 심어 결과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공의를 위해 협업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드는 실천

구성: 3요소 × 3하위차원 × 4문항 = 총 36문항 (5점 Likert 척도)

역채점 문항: 각 하위차원의 4번 문항 (총 9문항) | 총점 범위: 36-180점

응답 지침

각 문항을 읽고 현재 자신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번호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1 = 전혀 그렇지 않다 | 2 = 그렇지 않다 | 3 = 보통이다 | 4 = 그렇다 | 5 = 매우 그렇다

'R' 표시 문항은 역채점 문항입니다: 채점 시 6 - 응답값으로 환산합니다.



제1요소: 존재목적 척도 (Purpose Scale)

빙산의 밑둥 —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P-I 목적 자각 (Purpose Awareness)

자신의 존재이유와 마지막 목표(End Goal)에 대한 명확한 인식 수준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존재목적)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2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해야 할 일이 내 존재목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의식한다.	1	2	3	4	5
3	나는 내 존재목적이 단순한 생계·성공·명예를 넘어서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4R	나는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잘 모르겠다. (역채점) ※ 역채점 문항	1	2	3	4	5

P-II 목적 초월성 (Purpose Transcendence)

개인의 자아실현을 넘어 공동체·미래 세대를 향한 공의로운 지향성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	--------

다						
5	나는 내가 받은 재능과 행운(유전자 복권)이 나 혼자만을 위해 쓰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나는 지금까지 자연, 부모,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후세에게 갚아야 할 빚이라고 여긴다.	1	2	3	4	5
7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공동체와 미래 세대가 더 지속가능해지기를 바라며 행동한다.	1	2	3	4	5
8R	내 성공과 번성은 전적으로 나 자신의 노력과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역채점) ※ 역채점 문항	1	2	3	4	5

P-III 목적 정렬 헌신 (Purpose-Aligned Commitment)	현재의 선택과 행동을 존재목적에 정렬하는 실천적 헌신
--	-------------------------------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이 내 존재목적과 일치하는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1	2	3	4	5
10	단기적 실패와 손실도 존재 목적을 향한 학습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1	2	3	4	5
11	나는 존재목적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실제로 시간·자원·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다.	1	2	3	4	5
12R	일상의 바쁨 속에서 내 존재 목적을 잊고 그저 목표만 좇으며 살고 있다. (역채점) ※ 역채점 문항	1	2	3	4	5



제2요소: 긍휼 척도 (Compassion Scale)

빙산의 밑둥 — 나는 보이지 않는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는가?

C-I 자기긍휼 (Self-Compassion)

자신의 숨겨진 상처와 내면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수용·치유하는 역량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나는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이나 내면의 상처를 자기비판 없이 인정할 수 있다.	1	2	3	4	5
14	나는 나의 불완전함과 숨겨진 고통도 나 자신의 일부로 온전히 사랑한다.	1	2	3	4	5
15	실패하거나 상처받은 나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며 일으켜 세울 수 있다.	1	2	3	4	5
16R	나는 약점이나 실패를 떠올리면 강한 자기혐오나 수치감을 느낀다. (역채점) ※ 역채점 문항	1	2	3	4	5

C-II 타자긍휼 (Other-Compassion)

타인의 보이지 않는 아픔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의 아픔으로 공유하는 역량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	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대방의 고통을 찾아내어 내 고통처럼	1	2	3	4	5

	럼 느끼려 노력한다.					
18	나는 공동체에서 가장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의 아픔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고 느낀다.	1	2	3	4	5
19	나는 단순히 위로(Sympathy)에 그치지 않고, 고통의 근본 원인을 함께 해결하려 한다.	1	2	3	4	5
20R	타인의 어려움은 결국 그들 자신의 문제이며 내가 나서기 어렵다. (역채점) ※ 역채점 문항	1	2	3	4	5

C-III 존재론적 동반 (Ontological Partnership)	공허를 통해 서로를 동등한 삶의 주체로 세우고 공동체적 운명을 공유하는 역량
--	--

번 호	문항 내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21	나는 고통받는 사람을 시혜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동등한 삶의 주인으로 세우려 한다.	1	2	3	4	5
22	나는 배제된 사람들의 가면을 대신 써주는(대변하는) 역할을 기꺼이 맡는다.	1	2	3	4	5
23	나의 공허는 상대방과 나를 운명을 함께하는 존재론적 동반자로 묶어준다.	1	2	3	4	5
24R	나는 사람들을 주로 그들이 가진 능력·외모·지위 등으로 평가하는 편이다. (역채점) ※ 역채점 문항	1	2	3	4	5



제3요소: 코즈 척도 (Cause / 大義 Scale)

빙산의 밑동 — 나는 지금 당장 무엇을 심고 있는가?

CA-I 밑알 심기 (Seed-Planting)

목적의 밑알을 현재로 가져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는 역량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5	'내가 가진 것, 할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의 울타리 안에서 공의로운 행동을 시작한다.	1	2	3	4	5
26	큰 결실이 당장 보이지 않아도 작은 밑알을 심는 것이 충분히 의미 있다고 믿고 행동한다.	1	2	3	4	5
27	나는 공익 또는 지속가능성과 연결된 구체적인 활동·프로젝트·역할을 맡고 있거나 준비 중이다.	1	2	3	4	5
28R	지속가능한 변화는 특별한 사람만이 만들 수 있어서 내가 굳이 나설 필요는 없다. (역채점) ※ 역채점 문항	1	2	3	4	5

CA-II 협업 운동장 조성 (Building the Commons)

동역자를 규합하여 배제된 사람도 함께 참여하는 공의의 운동장을 만드는 역량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	--------

29	나는 같은 목적의식을 가진 동역자들을 찾아 연결하고 협업의 울타리를 만들려 노력한다.	1	2	3	4	5
30	나는 내가 만드는 변화가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운동장'이 되도록 설계한다.	1	2	3	4	5
31	나는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도 동등한 참여자로 포함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신경 쓴다.	1	2	3	4	5
32R	나는 혼자 일하는 편이 효율적이어서 굳이 협력자를 찾거나 판을 키우려 하지 않는다. (역채점) ※ 역채점 문항	1	2	3	4	5

CA-III 지속가능 결실 (Sustainable Legacy)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어질 공의의 유산을 의식하고 설계하는 역량
--	--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3	나는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지속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하려 한다.	1	2	3	4	5
34	나는 단기 성과보다 후세에게 남겨질 공의로운 유산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1	2	3	4	5
35	내가 심은 밑알이 점점 더 넓은 공의의 운동장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체감한다.	1	2	3	4	5
36R	내 활동의 효과가 내 생애 내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활동에 의미를 두기 어렵다. (역채점) ※ 역채점 문항	1	2	3	4	5



채점 방법 및 해석

채점 원칙

- ① 일반 문항: 응답값(1-5)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 ② 역채점(R) 문항: 6 - 응답값으로 환산합니다. (예: 응답 2 → 점수 4)
- ③ 하위척도 점수: 해당 4개 문항 점수의 합산 (범위: 4-20점)
- ④ 요소 점수: 3개 하위척도 점수의 합산 (범위: 12-60점)
- ⑤ 공의 총점: 3개 요소 점수의 합산 (범위: 36-180점)

▶ 총점 해석 기준

총점 범위	백분율	수준	해석 및 제언
144-180점	80% 이상	높음 (High)	공의의 세 요소가 고르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목적·공허·코즈가 선순환하며 지속가능한 공의로운 삶의 토대가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현재의 코즈를 더 넓은 운동장으로 확장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108-143점	60-79%	보통 (Moderate)	공의의 요소들이 부분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하위척도를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개발하십시오. 특히 자기공허 없이는 타자공허가 시혜적 행위로 머물 수 있습니다.
72-107점	40-59%	낮음 (Low)	공의의 빙산 밑동이 충분한 부력을 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존재목적 탐색부터 시작하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행운을 주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내면의 목적함수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36-71점	40% 미만	매우 낮음 (Very Low)	공의의 빙산 밑동이 매우 취약합니다. 자기공허 훈련과 존재목적 워크숍을 우선적으로 권장합니다. 공정성만으로 정의를 실현하려 할 때 나타나는 영구 미완성의 정의(Ouroboros 패턴)에 빠질 위험이 높습니다.

▷ 하위척도 구성 요약

하위척도	구성 문항	최고점	측정 핵심 역량
🏆 목적 자각 (P-I)	P1-P4 (P4역)	20	존재목적의 명확한 자각과 마지막 목표 의식
🏆 목적 초월성 (P-II)	P5-P8 (P8역)	20	개인 이익을 넘어 공동체·미래 세대를 향한 지향
🏆 목적 정렬 헌신 (P-III)	P9-P12 (P12역)	20	현재 선택을 존재목적에 정렬하는 실천적 헌신
🤝 자기공유 (C-I)	C1-C4 (C4역)	20	숨겨진 내면의 고통 인정·수용·치유
🤝 타자공유 (C-II)	C5-C8 (C8역)	20	타인의 보이지 않는 아픔 발견·공유
🤝 존재론적 동반 (C-III)	C9-C12 (C12역)	20	서로를 동등한 삶의 주체로 세우는 동반자 관계
♣ 밀알 심기 (CA-I)	CA1-CA4 (CA4역)	20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코즈 실천
♣ 협업 운동장 (CA-II)	CA5-CA8 (CA8역)	20	동역자 규합과 포용적 공의 운동장 조성
♣ 지속가능 결실 (CA-III)	CA9-CA12 (CA12역)	20	후세에 이어질 공의로운 유산 설계

이론적 배경 및 척도 개발 근거

1. 구성개념의 이론적 정의

공의(公義, Righteousness)는 윤정구(2026)의 빙산 모형에서 공정성(Fairness)이라는 정의의 가시적 윗동을 떠받치는 비가시적 밑동으로 정의됩니다. 공정성이 법·절차·분배를 통한 개인 이익의 정당성을 추구하는 영합(Zero-Sum) 게임에 기반한다면, 공의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향한 목적·공휴·코즈의 정합(Plus-Sum) 원리에 기반합니다.

2. 세 구성요소와 하위차원 설정 근거

존재목적(Purpose): 목표(Goal)와 달리 마지막 목표(End Goal), 즉 삶의 개입이 끝나는 순간에 실현될 종속 변수로 정의됩니다. 개인 수준의 목적 자각(P-I), 공동체·미래 세대를 향한 초월적 지향(P-II), 그리고 현재 선택과 행동의 목적 정렬(P-III)로 분화됩니다.

공휴(Compassion): 공감(Empathy)이나 위로(Sympathy)와 구별되는 고차원 윤리 정서로, 불교의 자비, 유교의 측은지심, 기독교의 공휴에 상응합니다. 자기공휴(C-I)이 타자공휴(C-II)의 전제 조건이며, 이 둘이 통합될 때 존재론적 동반 관계(C-III)가 형성됩니다.

코즈/大義(Cause): 보이지 않는 목적의 밑알을 현실에 심어 관리 가능한 공의의 운동장으로 만드는 행동주의적 실천입니다. Arthur Ashe의 에이즈재단, Muhammad Yunus의 그라민은행, Malala Yousafzai의 교육 운동, Salman Khan의 Khan Academy 사례를 통해 밑알 심기(CA-I), 협업 운동장 조성(CA-II), 지속가능 결실(CA-III)의 3단계로 개념화됩니다.

3. 역채점 문항 설계 논리

각 하위차원의 4번 문항(총 9문항)은 공의의 결핍 상태를 기술하는 역채점 문항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묵인(acquiescence) 편향을 통제하고,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 편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표준적 척도 설계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4. 향후 타당화 과제

본 척도는 이론 기반 문항 구성(Theory-Based Item Generation) 단계이며, 실제 활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심리측정적 타당화가 필요합니다: ①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9요인 구조 검증, ② Cronbach α 및 McDonald's ω 를 통한 내적 신뢰도 산정, ③ 진정성 리더십, 사회적 자본, 친사회적 행동과의 수렴·변별 타

척도 설계 원리

전체 구조: 3요소 × 3하위차원 × 4문항 = **총 36문항** (5점 Likert, 총점 36~180점)

각 요소는 원고에서 제시한 개념적 위계를 따라 3단계로 분화했습니다:

존재목적 척도 (P-I ~ P-III)

- **목적 자각:** 존재이유와 마지막 목표(End Goal)의 명확한 인식
- **목적 초월성:** 개인 이익을 넘어 공동체·미래 세대를 향한 지향 (유전자 복권 인식 포함)
- **목적 정렬 헌신:** 현재의 선택과 행동을 존재목적에 실제로 정렬하는 실천

긍휼 척도 (C-I ~ C-III)

- **자기긍휼:** 내면의 숨겨진 고통 인정·수용·치유 (타자긍휼의 전제조건)
- **타자긍휼:** 보이지 않는 타인의 아픔 발견·공유 (공감/위로와 구별되는 고차원 정서)
- **존재론적 동반:** 서로를 동등한 삶의 주체로 세우는 동반자 관계

코즈 척도 (CA-I ~ CA-III)

- **밀알 심기:**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 당장 시작하는 실천
- **협업 운동장:** 동역자를 규합하고 배제된 이도 포함하는 공의의 운동장 조성
- **지속가능 결실:** 자신이 떠난 후에도 이어질 유산을 의식하고 설계하는 역량

역채점 문항 9개: 각 하위차원의 4번 문항은 공의의 결핍 상태를 기술하여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을 통제합니다. 문서 마지막에 향후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 측정 동일성 검증 등 심리측정적 타당화 과제도 명시해 두었습니다.